

# 4 일차

## 매일 매일 꾸준히!

하루는 짧지만 그 하루가 모이면  
당신의 생각 그 이상의 것이 된다.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두만강 너 우리의 강아

이용악

나는 죄인처럼 수그리고  
나는 코끼리처럼 말이 없다  
두만강 너 우리의 강아  
너의 언덕을 달리는 찻간에  
조고마한 자랑도 자유도 없이 앉았다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다만  
너의 가슴은 열었으리라  
그러나  
나는 안다  
다른 한 줄 너의 흐름이 쉬지 않고  
바다로 가야 할 곳으로 흘러내리고 있음을

지금  
차는 차대로 달리고  
바람이 이리처럼 날뛰는 강 건너 별판엔  
나의 젊은 넋이  
무엇인가 기다리는 듯 얼어붙은 듯 섰으니  
육된 운명은 밤 우에 밤을 마련할 뿐

잠들지 말라 우리의 강아  
오늘 밤도  
너의 가슴을 밟는 못 슬픔이 목마르고  
얼음길은 거칠다 길은 멀다

길이\* 마음의 눈을 덮어줄  
검은 날개는 없느냐  
두만강 너 우리의 강아  
북간도로 간다는 강원도치\*와 마주앉은  
나는 울 줄 몰라 외롭다

\* 길이 :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 강원도치 : 강원도 사람

(나) 산

이형기

산은 조용히 비에 젖고 있다.  
밀도 끝도 없이 내리는 가을비  
가을비 속에 진좌한 무계를  
그 누구도 가늠하지 못한다.  
표정은 뿌연 시야에 가리우고  
다만 ㉠윤곽만을 드러낸 산  
천 년 또는 그 이상의 세월이  
오후 한때 가을비에 젖는다.  
이 심연 같은 적막에 싸여  
조는 등 마는 등  
아마도 반쯤 눈을 감고  
방심무한 비에 젖는 산  
그 옛날의 ㉡격노의 기억은 간 데 없다.

깎아지른 절벽도 양상한 바위도  
오직 한 가닥  
완만한 곡선에 눌러 버린 채  
어쩌면 눈물 어린 눈으로 보듯  
가을비 속에 어룡진 윤곽  
아 아 그러나 지울 수 없다.

[A]

(다) 마음의 수수밭

천양희

마음이 또 수수밭을 지난다. 머위잎 몇장 더 없어 뒤란으  
로 간다. 저녁만큼 저문 것이 여기 또 있다.  
개밥바라기별이  
내 눈보다 먼저 땅을 들여다본다  
세상을 내려놓고는 길 한쪽도 볼 수 없다  
논둑길 너머 길 끝에는 보리밭이 있고  
㉢보릿고개를 넘은 세월이 있다  
바람은 자꾸 등짝을 때리고, 절골의  
그림자는 암처럼 깊다. 나는  
몇 번 머리를 흔들고 산 속의 산,  
산 위의 산을 본다. 산은 올려다보아야  
한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저기 저  
하늘의 자리는 싱싱하게 푸르다.  
푸른 것들이 어깨를 툭 친다. 올라가라고  
그래야 한다고. 나를 부추기는 솔바람 속에서  
내 막막함도 올라간다. 번쩍 제정신이 든다  
정신이 들 때마다 우짖는 내 속의 ㉣목탁새들  
나를 깨운다. 이 세상에 없는 길을  
만들 수가 없다. 산 옆구리를 끼고  
절벽을 오르니, 천불산(千佛山)이  
몸속에 들어와 앉는다.  
내 ㉤맘속 수수밭이 환해진다.

[B]

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계절감을 드러내어 시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시적 대상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정서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가), (나), (다)는 구체적인 지명을 활용하여 화자의 처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 ⑤ (가), (나), (다)는 자연물의 변화 과정을 통해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2.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두만강 너 우리의 강아」는 ‘두만강’을 배경으로 일제 강점하의 민족 현실과 만주 등지로 떠나는 사람들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 작품에서 화자인 ‘나’는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밤기차로 두만강을 건너고 있다. 이때 화자는 두만강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역사에 대한 긍정적 자각과 아울러 떠나는 자의 죄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① 제1연에서 ‘나’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다’고 한 것은 현실에 대해 무기력한 자신에 대한 자책으로 볼 수 있다.
- ② 제2연에서 강물이 ‘바다로 가야 할 곳’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은 역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제3연에서 ‘강 건너 벌판’은 암담한 현실에서 벗어나 보다 나은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곳으로 볼 수 있다.
- ④ 제4연에서 ‘목마르고’, ‘거칠다’는 일제 강점 하에서 우리 민족이 겪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 ⑤ 제5연에서 ‘북간도로 간다는 강원도치’는 고향을 떠나 먼 타지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3. [A]와 [B]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B]와 달리 의인화를 통해 친근감을 나타내고 있다.
- ② [A]는 [B]와 달리 영탄적 표현을 통해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 ③ [B]는 [A]와 달리 색채어를 통해 선명한 인상을 드러내고 있다.
- ④ [B]는 [A]와 달리 상승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심리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 ⑤ [B]는 [A]와 달리 화자를 직접 드러내어 화자 자신의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비’에 젖어 뿌옇게 보이는 산으로 화자 자신의 답답한 심정을 암시하고 있다.
- ② ㉡ : ‘완만한 곡선’이 되기 전 걱정적인 감정에 휩싸였던 ‘산’의 지난날을 의미하고 있다.
- ③ ㉢ : ‘보리밭’과 겹치어 마음속에 연상된 것으로 화자의 힘들었던 과거를 함축하고 있다.
- ④ ㉣ : ‘하늘’과 ‘술바람’에 의해 제정신이 든 화자를 일깨우는 존재를 의미하고 있다.
- ⑤ ㉤ : ‘절벽’에 오르고 ‘산’을 받아들이면서 어둡고 우울한 상태에서 벗어나고 있는 화자의 심리를 의미하고 있다.

(5~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박경사의 아버지는 일본의 밀정이었다고 동료들이 증언하여 배신자로 낙인찍힌다. 박경사는 경찰이 되어 아버지의 친구였다는 오도민을 찾아간다. 그리고 오도민을 통해 김광모 의원을 알게 되는데, 김광모 의원은 박경사에게 자신의 정적(政敵)이자 독립투사로 알려진 이종철이 박경사의 아버지를 포함한 인물이라고 말해준다.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그걸 아셨습니까?  
박경사는 험뎠거렸다. 그러나 김광모 의원은 서두르지 않았다. ㉠ 파이프에 입담배를 담아 누르며 그가 말했다.

-자네 마음먹기에 달렸네. 그놈의 정체를 만천하에 드러내 보인 다음 자네 부친이 뒤집어쓴 누명을 벗기는 걸세.

-어떻게, 무슨 증거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다 방법이 있네. 우선 모든 일은 자네 부친과 죽마고우였던 오도민 씨가 다 알아서 도와 줄 걸세. 이종철이 그놈이 자네 부친을 모함했듯 우리도 그놈의 허상을 깨뜨리고 그 실체를 만천하에 공개하는 거야. 그 일의 증인이 바로 자네가 되어야 하네. 자네 부친을 위해서 자네가 나설 때가 온 거야.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몰라도 좋아. 오히려 모르는 게 좋을 걸세. 오도민 씨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야. ㉡ 내 말뜻 알아듣겠나?

박경사는 대답할 수가 없었다. 김광모 의원과 자신의 후견인으로 행세하는 오도민 씨의 속셈이 한번에 석연하게 잡혀들자 가슴이 떨렸다. 천 길 낭떠러지로 곤두박질쳐지는 낭패감이 엄습했다. 그것은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한 허망감이었다.

그러나 문득 박경사는 마음 한편에서 서서히 고개를 쳐드는 유희의 손을 보았다. 아버지를 위해서, 어머니가 확신하고 있는 아버지의 실상을 살려내기 위해서 자식이 힘을 보태지 않으면 그것을 또 다른 누가 할 것인가. 그는 마음 밑바닥에 어떤 기꺼움 같은 게 별렁별렁 숨쉬기 시작할 걸 알고 있었다. 어쩌면 아버지는 김광모 의원의 말대로 배신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배신을 당한 그런 억울한 입장일는지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그 억울함을 자식이 나서서 큰 소리로 외쳐 아버지의 결백을 주장한다-그렇게 해야 마땅할 일이다. 그것은 또 가능했다. 김광모 의원과 오도민 씨와..... 그 순간 박경사는 한 사람의 웃는 얼굴이 머리에 떠올랐다. 자기 자신의 얼굴이었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아버지 얼굴 같기도 했다. 열 살 때 밤 눈을 떴을 때 등잔불 곁에 앉아 있던 아버지의 얼굴에다가 방금 전 머리에 그려진 웃는 얼굴을 겹쳐 보았다. 그러나 박경사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아버지의 웃는 얼굴을 본 적이 없었다. 그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웃는 얼굴이 보여진다는 것은 하나의 치욕이었다. 크고 옳은 것을 위해 일한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은 결코 그런 웃음을 웃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는 못박아 생각했다.

-저는 지금 아버지의 실상을 찾고 있을 뿐입니다. 만들어진 아버지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아버지를 찾고 싶습니다.

-내 제의에 대한 거절의 뜻인가?

-그렇습니다. 저는 아버지에 대한 일은 저 혼자 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경사는 김의원의 얼굴에 불쾌한 그들이 지는 걸 역력히 알 수 있었다. 그들은 곧 낭패스러운 얼굴로 바뀌어 갔다.

박경사의 가슴에 한가닥 두려움 같은 게 끼어들었다. 그러나 ㉢ 그 두려움보다 몇배의 큰 희열이 어금니에 지그시 씹히고 있을 을 그는 즐기고 있었던 것이다.

(중략)

-자네 김의원께서 제안한 걸 거절했다며? 방금 서울서 전화가 왔네.

-거절이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애긴가, 자네 부친의 누명을 벗기는 데 자네가 협조할 수 없다는 건?

박경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성질의 것도 아니었다.

-자네 출세하기 싫다는 거군.

-저는 지금 이대로그가 좋습니다.

㉔ -지금 이대로는 누구 덕택인데 그런 소릴 하나?

박경사는 안주머니에서 그 [봉투]를 꺼내 놓았다.

-김의원께서 여비나 하라고 주셨는데 아무래도 봉투가 바뀐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이거 덜 떨어졌군.

오도민 씨는 박경사가 내놓은 봉투의 내용을 살펴보며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찼다.

-이 사람아, 이런 건 남한테 내보이는 게 아냐. 자네 부인한테나 가지고 가 자랑을 할 것이지.

-오사장님께서 말았다가 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담 가질 일이 아니니까 안심하고 넣어 두게. 누구를 위해서 일한다는 생각보다 바로 자네 자신을 위해서 힘이 닿는 데 까지 일하면 되는 거야. 기회란 그렇게 흔한 게 아닐세. 자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네.

오도민 씨는 자기를 위해서 일해 달라는 얘기만은 하지 않았다. 죽마고우 아들의 장래를 걱정하는 그의 얼굴은 결코 밝지 못했다. 박경사가 끝내 그 봉투를 놓고 일어섰던 것이다. 그가 앉은 채 방을 나서는 박경사한테 한마디 던졌다.

㉕ -자네 역시 대단한 사람이군. 이까짓 걸 먹고 먹었다는 소린 듣기 싫다 그 애긴가?

[A] 외등 주위에 물려든 날벌레들의 어지러운 난무는 여전했다. 더 많은 날벌레들이 모여들어 서로 엉겨 돌았다. 좀 전까지 그 큰 몸체를 사정없이 부딪쳐 가며 날뛴던 나방은 이제 보이지 않았다. 지쳐 떨어졌겠지. 그 나방처럼 사는 게 굵고 짧게 사는 걸까. 박경사는 혼자 웃었다. 그 나방처럼 격렬한 삶을 정말 잠시라도 누리고 싶다는 충동이 불쑥 치민 것이다. 어쩌면 아버지가 누린 그 일생은 저 나방과 같이 짧고 격렬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 전상국, 「외등(外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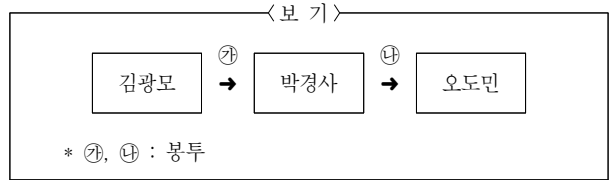
5.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가치관의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 ② 독백적 어조로 현실과 단절된 의식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 ③ 회상의 기법을 사용하여 과거에 대한 향수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사건을 병렬적으로 구성하여 이야기의 입체감을 높이고 있다.
- ⑤ 장면에 따라 서술 시점을 달리해 사건을 분석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6. ㉔~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㉔ : 상대방에 대한 답답한 심정이 드러나 있다.
- ② ㉔ : 자신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는지 확인하고 있다.
- ③ ㉔ : 자신의 결정에 대한 인물의 만족감이 드러나 있다.
- ④ ㉕ : 상대방의 태도에 불쾌해하며 힐난하고 있다.
- ⑤ ㉕ : 상대방을 비꼬는 냉소적인 태도가 드러나 있다.

7. '봉투'의 전달 과정을 <보기>와 같이 도식화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㉔에는 '박경사'를 회유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다.
- ② ㉕를 전달하는 행위에는 '박경사'의 단호한 의지가 드러나 있다.
- ③ '한 사람의 웃는 얼굴'은 ㉔를 되돌려주려는 '박경사'의 결심과 관련이 있다.
- ④ ㉔와 ㉕는 인물들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이다.
- ⑤ ㉔는 인물 간의 타협을 이끌어 내고, ㉕는 인물 간의 관계를 단절시킨다.

8. <보기>를 참조하여 [A]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외등」은 '아버지 찾기' 모티프를 통해 신념과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삶을 보여주려는 작품이다. '박경사'는 일제 강점하에서 아버지가 항일 투사 활동을 했다고 믿는다. 이런 믿음을 바탕으로 그는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아버지의 삶의 방식을 이어가려 한다. 이러한 삶은 나방이 외등을 향하는 것으로 진술되는데, 이는 삶의 긍정적인 가치를 모색하는 인물의 모습을 작가가 의도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 ① 박경사는 '나방'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삶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 ② 「외등」은 아버지가 추구하고자 했던 긍정적인 삶의 목표라 볼 수 있다.
- ③ 부정한 방법을 거부하는 박경사는 「외등」을 향하는 '나방'으로 볼 수 있다.
- ④ 지쳐 떨어진 '나방'에 대해 느끼는 감정은 아버지의 삶에 대한 실망감으로 볼 수 있다.
- ⑤ 아버지의 삶에 대한 박경사의 믿음을 고려했을 때 아버지에게 「외등」은 조국의 광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9 ~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명경(明鏡)에 티 끼거든 값 주고 닦을 줄  
아이 어른 없이 다 알고 있건마는  
값없이 닦을 명덕(明德)을 닦을 줄을 모르도다.

성의관(誠意關)\* 돌아들어 ㉠ 팔덕문(八德門)\* 바라보니  
크나큰 한길(汗)이 넓고도 끝다마는  
어찌타 종일 행인이 오도가도 아닌 게오.

구인산(九仞山)\* 긴 술 베어 제세주(濟世舟)\*를 만들어 내,  
길 잃은 행인을 다 건네려 하였더니  
사공이 변변치 못해 ㉡ 모강두(暮江頭)\*에 버렸도다.  
- 박인로, 「자경(自警)」

\* 성의관 : 뜻을 정성스럽게 하는 문                      \* 팔덕문 : 여덟 가지 덕  
을 갖춘 문  
\* 구인산 : 대덕(大德)으로 비유되는 높은 산    \* 제세주 : 세상을 구제할 배  
\* 모강두 : 저무는 강가

(나) 여파(餘波)\*에 정을 품고 그 근원을 생각해 보니,  
연못의 잔물결은 맑고 깨끗이 흘러가고  
오래된 우물에 그친 물은 담연(淡然)\*히 고여 있다.  
짧은 담에 의지하여 ㉢ 고험(苦海)를 바라보니  
욕심의 거센 물결이 하늘에 차서 넘치고  
탐욕의 샘물이 세차게 일어난다.  
흐르는 모양이 막힘이 없고 기운차니 나를 알 이 누구인가.  
평생을 다 살아도 백 년이 못 되는데  
공명이 무엇이라고 일생에 골물할까.  
낮은 벼슬을 두루 거치고 부귀에 늙어서도  
남가(南柯)\*의 한 꿈이라 황량(黃粱)\*이 덜 익었네.  
나는 내 뜻대로 평생을 다 걸어서  
천지에 넉넉하게 노닐고 강산에 누우니  
사시(四時)의 내 줄길이 어느 때 없을런가.  
㉣ 누항(陋巷)에 안거(安居)하여 단표(簞瓢)의 시름없고  
세로(世路)에 발을 끊어 명성(名聲)이 감추어져  
은거행의(隱居行義) 자허(自許)\*하고 요순지도(堯舜之道) 즐기  
니  
내 몸은 속인(俗人)이나 내 마음 신선이오.  
진계(塵界)\*가 지척(咫尺)이나 지척이 천 리로다.  
제 뜻을 고상하니 제 몸이 자중(自重)하고  
일체의 다툼이 없으니 시기할 이 누구인가?  
뜬 구름이 시비 없고 날아다니는 새가 한가하다.  
여년(餘年)이 얼마라고, 이 아니 즐거운가.  
- 이이, 「낙지가(樂志歌)」

\* 여파 : 잔잔히 이는 물결  
\* 담연 : 맑고 깨끗함.  
\* 남가 : '남가일몽(南柯一夢)'에서 온 것으로 인생의 덧없음을 뜻함.  
\* 황량 : '황량몽(黃粱夢)'에서 온 것으로 인생의 덧없음을 뜻함.  
\* 자허 : 할 만한 일이라고 여김.  
\* 진계 : 속세

(다) 큰 누님께서 가락리의 집에서 돌아가셨다. 누님은 한 쌍의  
거위를 기르고 있었는데, 누님이 돌아가시자 그 거위들이 안  
마당으로 들어와서는 안방을 바라보고 슬피 울었다. 이처럼  
애처롭게 울기를 몇 달을 계속하니 온 집안 식구들이 그 때  
문에 더욱 가슴 아파했다.  
나는 그때 감사의 부관이 되어 멀리 있었으므로 그런 소문  
만 들었을 뿐 직접 보지는 못했다. 이듬해 봄에 무릉촌 집이

완성되어 그 한 쌍의 거위를 데려다 놓았다. 그런데 두 마리  
가 수컷이었다. 깨끗한 깃털은 티끌 하나 묻지 않았고, 이놈  
이 울면 저놈이 따라서 우는 것이 마치 무슨 이야기를 나누  
는 듯하고, 물을 마셔도 함께 마시고 모이를 쪼아 먹어도 함  
께 먹었다. 또 그놈들이 마당을 빙빙 돌며 춤추듯 뛰어다니는  
모양이 마치 서로를 위로해 주는 듯했다.

날마다 그놈들과 노는 것이 하나의 재미가 되었는데 뜻밖에  
도 그 해 시월 열나흘 날 밤에 그 중 한 마리가 죽어 버렸다.  
아침에 일어나 거위 우리를 살펴보니 살아 있는 놈이 죽은  
놈을 품고서 날개를 치며 슬피 울어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울음소리가 하늘까지 사무치니 보는 사람마다 불쌍하고  
안타까워 한숨을 지었다. 동네 아이들이 와서 죽은 놈을 가져  
가자, 산 놈은 바로 일어나 이리저리 배회하기 시작했다. 원  
망 어린 소리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마치 죽은 놈을 찾는  
것 같았다.

나는 이 거위를 보며 생각했다. 저 거위는 하찮은 미물인데  
도 그 주인을 사모하는 정이 이처럼 충성스러웠고, 그 친구를  
불쌍히 여기는 모습이 이처럼 의로우니 얼마나 아름다운가.  
내가 보기에 세상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친구를 팔기도 하  
고 자신까지도 팔아넘기는 사람들이 열에 다섯도 더 되는데,  
하물며 나라에 충성하는 이는 몇 사람이나 될 것인가?

천지 사이의 많은 무리 가운데 오직 인간이 가장 존귀한 존  
재이다. 그런데 저 딱 막힌 미물인 거위는 군자의 지조를 지  
녔고, 신령스럽다는 인간은 도리어 미물만도 못하니, 그렇다  
면 사람의 옷을 입고도 말이나 소처럼 행동하는 그런 놈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반대로 깃털로 몸  
을 감쌌지만 어질고 의로운 마음을 가진 짐승을 그냥 미물이  
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거위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사람들의 나쁜 마음을  
돌려서 너와 같은 성실한 마음을 지니도록 하고자 하나, 그렇  
게 되지를 않는구나. 그러니 앞으로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  
나? 답답한 노릇이다. 이런 까닭으로 의로운 거위의 이야기를  
적어서 오래 기억하고자 하는 것이다.

- 주세붕, 「의아기(義鵝記)」

9.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현재와 대비되는 과거를 그리워하고 있다.
  - ② 글쓴이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③ 내면적인 갈등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 ④ 속세를 벗어나서 유유자적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 ⑤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10.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화자의 심리적 고뇌가 해소되는 공간이다.
  - ② ㉠과 ㉢은 화자가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는 공간이다.
  - ③ ㉠과 ㉢은 화자의 아쉬움이 드러나는 공간이다.
  - ④ ㉢은 ㉠과 달리 화자가 자부심을 느끼는 공간이다.
  - ⑤ ㉢은 ㉠과 달리 화자가 앞으로 머물고자 하는 공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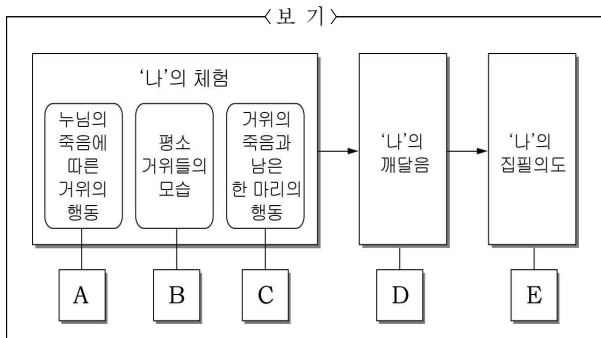
11. (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아이 어른’이 ‘명경’은 값을 주고 닭으면서도, 값없이도 닭을 ‘명덕’은 닭지 않는다고 했으니, 이들이 ‘명경’과 ‘명덕’을 대하는 태도는 다르군.
- ② ‘아이 어른’이 ‘명덕’을 닭을 줄 모른다고 하는 것을 보니 ‘아이 어른’은 ‘한길’을 오도가도 하지 않는 ‘행인’과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군.
- ③ ‘한길’을 넓다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한길’은 ‘행인’이 원한다면 누구나 다닐 수 있는 길임을 드러낸 것이군.
- ④ ‘구인산’의 ‘술’로 만든 배로 ‘행인’을 건네려 한 것을 보니 ‘명덕’으로 사람들을 구제하려는 화자의 의도를 읽을 수 있군.
- ⑤ ‘모르도다, 아닌 게오, 버렸도다’와 같이 부정적인 서술어로 끝맺은 것은 현실적 삶에 얽매이지 않으려는 화자의 의지를 보여주려 함이군.

12. (나)의 표현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의도를 강조하고 있다.
- ③ 계절의 변화를 묘사하여 인간과 자연을 대비하고 있다.
- ④ 고사(故事)를 인용하여 인생의 덧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비유를 활용하여 경계하려는 세상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13. (다)의 내용을 <보기>와 같이 구조화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나’는 A에서 간접적으로 접한 거위들의 신의 있는 모습을 C에서 직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 ② ‘나’는 B에서 거위의 행동이 갖는 의미를 추출하여 이를 C에서 인간의 행동에 적용시키고 있다.
- ③ A~C에서 D로의 전개 과정은 ‘나’의 사고 범위가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④ ‘나’는 D에서 인간의 세태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 ⑤ E에는 D의 깨달음을 타인에게 전달하려는 ‘나’의 의지가 드러나고 있다.

[14~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장풍운의 셋째 부인 ‘유씨’는 천자의 조카로, 장풍운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 부인’에 대한 질투가 심하였다. 장풍운이 토번을 진압하기 위해 집을 비우자, ‘유씨’는 계교로 ‘이 부인’을 모해하여 죽을 위험에 빠뜨린다. 천자는 ‘이 부인’이 임신한 것을 알게 되어 아이를 낳을 때까지 처형을 미루고 옥에 가둘 것을 명한다. 장풍운의 모친 ‘양 부인’과 둘째 부인 ‘왕 부인’은 옥에 갇힌 ‘이 부인’을 걱정한다.

‘양 부인’이 먹을 것과 약물 등을 준비하여 옥중(獄中)으로 보내고, ‘왕 부인’과 더불어 의논하며 좌승상 풍운이 돌아오기를 고대했다. 여러 달이 지나매, ‘왕 부인’은 간장이 녹는 듯하여 봉한 ① 편지와 아이의 옷을 지어 시비 옥섬을 불러서 주며 말했다.

“옥중의 ‘이 부인’께 드리되, 아무도 모르게 하여라.”  
 옥섬이 받아 가지고 옥졸에게 인정(人情)을 쓰고, ‘이 부인’을 뵈기를 청하여 편지와 옷 보자기를 자란에게 주고 ‘왕 부인’ 말씀을 전했다. ‘이 부인’이 정신을 차려 서간을 떼어 보니, 다음과 같이 써어 있었다.

“소첩 왕씨는 두어 자를 올리나이다. 조물주가 시기하고 귀신이 돕지를 않아 변란이 규문(閨門)에 미쳐 부인의 빙옥 같은 절개에 천고에도 없을 누명을 씌우니, 이는 부인의 액운일 뿐 아니라 또 첩의 일이기도 한지라 어찌 매우 끔찍한 일이 아니겠사옵니까? 천도(天道)가 비록 높으나 살피심이 대수롭지 아니하시니, 승상이 곧 오시면 옹고 그림이 분간될 것이옵나이다. 하니 바라건대 귀한 몸을 소중히 여기소서.”

‘이 부인’이 다 읽고 난 후 눈물이 물 흐르듯 하여 능히 말을 이루지 못하다가 심회를 진정하여 답서를 써서 보내었는데 그 ② 편지에 다음과 같이 써어 있었다.

“죄인 이씨는 삼가 답서를 올리나이다. 첩의 죄가 중하고 허물이 깊어 다섯 살에 자모(慈母)를 잃고 계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의지와 기개를 펴지 못하다가, 열여섯 살에 승상의 아내가 된 지 여섯 달 만에 부친을 여의었사옵나이다. 그래서 이 한 몸 고향을 떠나 정처 없이 떠돌다가 단원사 승당에서 천행으로 시어머니를 만나 서로 의지했고, 또 승상과 부인을 만나매 다시는 환란이 없을까 했사옵나이다. 한테 지금 생각지도 못했던 변고를 겪으니 천지일월(天地日月)만이 증명하실 바이지, 잘못이 없음을 다시 밝힐 길이 없어 대강 기록하나이다. 바라건대 부인은 첩을 생각지 말고, 다만 제 동생을 거두어 은혜를 베풀어주시면 지하에 가도 눈을 감을까 하나이다.”

‘왕 부인’이 다 읽은 후에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다가 문득 한 계책을 생각하고 경운을 불러 말했다.

“이제 공자의 누님이 겪어야 할 환란이 목전에 있는지라, 승상께서 빨리 오시면 옹고 그림이 가려질 것이요. 생각건대 승상이 타시던 준마가 있으니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가서 승상을 모셔 오면, 화가 변하여 복이 되리라.”

경운이 이 말을 듣고 울며 물었다.

“부인의 말씀이 감사하오나, 그 사이 누님이 아이를 낳게 되면 죽을 것이니 어찌해야 하리이까?”

“그 일은 내가 감당할 것이니, 공자는 체비를 차려서 떠나되 더디 오지 마시오!”

경운이 하직 인사를 드리고 길을 떠났다.

차실. 좌승상이 행군한 지 여러 날 만에 하북(河北)에 이르러 한 번 북을 쳐 도적을 물리치고 황성으로 향하고자 했다. 이날 밤 꿈에 금산사 부처가 장막에 와서 좌승상에게 말했다.

“부인의 생사가 급하니 빨리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는 온데간데 없었다. 좌승상이 마음속으로 놀라 근심에 잠겼다.

문득 군사가 “경운 공자가 왔다.” 알리자, 좌승상이 크게 놀라

서 바빠 불러들이라 했다. 경운이 들어와 아무 말도 못하고 기절하는지라 붙들어 구호하며 까닭을 물으니, 경운이 서간을 드리며 그간의 사정을 알렸다. 좌승상이 유씨의 소행으로 짐작하고 부원수에게 “뒤를 따르라.” 명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바빠 경성으로 향하여 갔다.

차설, ‘이 부인’이 옥동자를 낳으니, ‘왕 부인’이 기뻐하여 금을 옥졸에게 주어 아이 낳은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못하도록 했다. 그런데도 유씨가 이를 알고 부왕에게 낚을 시켜 천자에게 아뢰게 하니, 천자가 ‘이 부인’을 처형하도록 윤허하였다. ‘왕 부인’이 소식을 듣고 ‘이 부인’과 함께 죽고자 했다. 법관이 삼로(三路)에서 ‘이 부인’을 수레에 올리니, ‘왕 부인’은 통곡했다. ‘이 부인’이 자란에게 아이를 맡기고 까무러치니, 옥졸이 차마 죽이지 못했다.

이때 좌승상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려와 경성에 이르니, 꼭 오시(午時)였다. 멀리 바라보니, 삼로(三路)에서 옥졸이 수레를 옹위하고 가는데, 명패(名牌)에는 다음과 같이 써어 있었다.

“당일 오시에 음부(淫婦) 이경패를 참하라.”

좌승상이 말을 달려 수많은 사람의 무리를 헤치고 형을 집행하는 관리에게 가서 전후사연을 이르며 “참하는 시각을 늦추라.” 하고는, 바로 입궐하여 벌줄 것을 청했다. 천자가 크게 놀라셨지만 먼저 먼 길 갔다 온 것을 위로하시고, 다음으로 옥사(獄事)를 말씀하셨다. 좌승상이 싸움에 나가 이겨 공을 세운 경위를 아뢰고는, 옥사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다.

“금일 옥사는 저의 집안의 사사로운 일이오니 스스로 맡아서 처리하게 해 주소서.”

천자가 이를 윤허하였다. 좌승상이 본가(本家)로 돌아와 ‘양 부인’을 뵈 후, 형구(形具)를 차려놓고 모든 시비를 죄주려 하니, 엄한 형벌 아래서 쥐 같은 무리들이 어찌 죄를 감출 수가 있으랴. 불하일장(不下一杖), 곧 한 대도 때리기 전에 이미 난항 등이 잘못을 낱낱이 순순히 자백했다. 좌승상이 글을 올려 옥사를 뒤집고, 유시를 그 수레에서 사형에 처하고, 난항 등을 능지처참한 후, ‘이 부인’을 구호했다.

- 작자 미상, 「장풍운전(張豐雲傳)」

16. 위 글의 공간과 인물을 중심으로 사건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을 때,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간	인물	주요 사건
옥	이 부인, 왕 부인	왕 부인은 옥심을 통해 모해사건의 피해자인 이 부인을 돕고 있다. ①
하북	장풍운, 경운	장풍운은 경운이 전달한 서간으로 인해 모해사건의 가해자를 짐작하고 있다. …………… ②
삼로	장풍운, 이 부인	장풍운은 모해사건을 자신이 처리하기 위해 이 부인의 형 집행을 지연시키고 있다. …………… ③
궁궐	장풍운, 천자	천자는 장풍운의 청을 들어 가족의 문제를 그가 직접 해결하도록 허락하였다. …………… ④
본가	장풍운, 유씨, 난항	장풍운은 모진 형벌을 가해 난항의 자백을 유도하여 유씨가 주도한 모해사건을 해결하고 있다. …………… ⑤

14.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 ② 서술자가 작품에 개입하여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배경 묘사를 활용하여 인물의 심리를 나타내고 있다.
- ④ 장면의 전환을 활용하여 사건을 간막하게 전개하고 있다.
- ⑤ 인물이 처한 상황을 꿈을 통해 다른 인물에게 알리고 있다.

15.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달리 ㉡에는 상대방에 대한 공경의 자세가 드러나 있다.
- ② ㉠과 달리 ㉡에는 자신의 삶에 대한 회한이 드러나 있다.
- ③ ㉠에는 상대방에 대한 위로가, ㉡에는 상대방에 대한 연민이 드러나 있다.
- ④ ㉠에는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태도가, ㉡에는 비관적인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⑤ ㉠과 ㉡에는 모두 새로운 갈등을 유발하게 하는 요인이 드러나 있다.

**빠른정답.**

1	3	1	1	1
1	5	4	2	2
5	3	2	3	4
5				

[1~4] (현대시) 이용악, 「두만강 너 우리의 강아」 이형기, 「산」 천양희, 「마음의 수수밭」

1. [출제의도] 작품들의 공통점 찾기

(가)의 ‘얼음길’은 암울한 시적 분위기를, (나)의 ‘가을비’는 적막하고 신비로운 시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② (가)에는 시적 대상의 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 (나)에는 공간의 이동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특별한 정서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지도 않다. ④ (나)는 구체적인 지명을 통해 화자의 처지를 부각시키고 있지 않다. ⑤ (나)에는 ‘산’의 과거와 현재 모습이 제시되어 있고, ‘산’의 모습을 보며 감상에 젖어있지만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고, (가)와 (나)에서는 구체적인 자연물의 변화 과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 [출제의도] 자료를 활용하여 시 감상하기

‘강 건너 별관’은 ‘바람이 이리처럼 날뛰는’ 곳이며 화자의 ‘젊은 녀’이 ‘얼어붙은 듯’ 서 있는 곳이므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이상적인 공간이라고 보기 어렵다. ① ‘나’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말이 없다’고 한 것은 일제 강점 하에서 조국을 등지고 떠날 수밖에 없는 처지인 화자가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기면서 자책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강물은 면면히 이어질 우리 민족의 역사를 상징하고 있으며 따라서 강물이 ‘바다로 가야 할 곳’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한 것은 역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목마르고’와 ‘거칠다’는 두만강을 건너 이주하는 이들, 즉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고통과 시련을 의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⑤ ‘북간도로 간다는 강원도치’는 일제 강점 하에서 화자와 같이 국경을 넘어 타지로 떠나는 유이민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3.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비교하기

[A]에서는 의인화된 표현을 확인할 수 없다. ② ‘아아 그러나 지울 수 없다.’에서 영탄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어룡진 윤곽의 산을 보며 깊은 감상에 젖은 화자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 ③ ‘하늘의 자리는 싱싱하게 푸르다.’에서 색채어가 활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에 선명한 인상을 부여하고 있다. ④ ‘산 위의 산을 본다.’, ‘산은 올라다보아야 한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올라가라고 그래야 한다고’ 등에서 상승적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어두운 내면 의식에서 벗어나고 있는 화자의 심리를 확인할 수 있다.

4. [출제의도] 시어의 의미 파악하기

① ‘윤곽만을 드러낸 산’은 ‘비’에 젖어 뿌옇게 보이는 산으로 화자는 산의 진좌한 무게와 비에 젖어 윤곽만을 드러내고 있는 신비스러운 모습에 지울 수 없는 감동을 느끼고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있다. ② ‘격노의 기억’은 산의 지난 시절을 가리키며 ‘깎아지른 절벽’, ‘양상한 바위’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식량 사정이 어려운 때’를 뜻하는 ‘보릿고개’라는 시어를 통해 화자가 힘겹게 보냈던 지난 시절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④ ‘목탁새’는 ‘정신이 들 때마다 내 속에서 우짖는 새’로 화자의 내면 의식을 끊임없이 일깨우는 새라고 할 수 있다. ⑤ ‘절벽’에 오르고 ‘천불산’을 받아들이면서 화자의 내면이 어둡고 우울한 상태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맘속 수수밭이 환해진다.’는 표현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5~8] (현대소설) 전상국, 「의동」

5. [출제의도] 작품의 특징 파악하기

김광모가 박경사에게 말하는 것(“몰라도 좋아. 오히려 모르는 게 좋을 걸세. 오도민 씨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야.” 등)으로 보아 자신의 정적인 이종철을 무너뜨리기 위해 박경사를 이용하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정당하지 않은 방법도 이용할 수 있다는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 박경사는 김광모의 제안을 끝내 거절하면서(“만들어진 아버지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아버지를 찾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아버지에 대한 일은 저 혼자 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등)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취하지 않겠다는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다. 박경사와 오도민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위와 같은 가치관의 차이가 드러나 있다. ② 부분적으로 독백적 어조로 박경사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지만 이를 통해 현실과 단절된 의식 상태를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③ 박경사는 김광모에게 제안을 받고 아버지와 관련된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지만 이를 통해 과거의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심리는 드러나 있지 않다. ⑤ 부분적으로 독백적 어조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사건을 분석적으로 제시하지는 않는다.

6. [출제의도] 인물의 심리 및 태도 파악하기

①은 박경사를 더욱 초조하게 만들려는 김광모의 행위로 볼 수 있지만, 박경사에 대한 답답한 심정을 드러낸다고는 볼 수 없다. ② ㉠은 자신의 의도를 박경사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다. ③ ㉡에는 김광모의 제안을 거절하기로 한 박경사 자신의 결정에 만족해하는 심리가 ‘회열’로 표현되어 있다. ④ ㉢에는 박경사의 뜻밖한 태도에 대해 불쾌해하며 힐난하고 있는 오도민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⑤ ㉣에는 끝내 봉투를 놓고 일어난 박경사의 태도를 비꼬는 냉소적인 태도가 드러나 있다.

7. [출제의도] 소재의 기능 및 소재와 관련된 사건의 의미 파악하기

㉤는 김광모가 박경사를 회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넨 것이나 결국 박경사는 김광모의 제안을 거절하므로 ㉤가 인물 간의 타협을 이끌어내지는 못한다. ② 박경사는 ㉥를 오도민에게 전달하면서 김광모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므로 ㉥를 전달하는 행위에는 박경사의 단호한 의지가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박경사는 김광모의 제안을 받고 마음 한편에 어떤 기꺼움을 느끼는데 그 순간 ‘한 사람의 웃는 얼굴’을 떠올린다. 그러나 신념을 가진 사람에게서 그런 웃는 얼굴이 보여질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김광모의 제안을 거절하기로 마음먹는다. 따라서 박경사가 김광모에게 받은 봉투를 오도민을 통해 돌려주려고 마음먹은 데는 한 사람의 웃는 얼굴이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④ ㉦에는 박경사를 회유하기 위한 김광모의 의도가 담겨 있고, ㉧에는 김광모의 제안을 거절하는 박경사의 의사가 간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8. [출제의도] 작품 감상의 적절성 파악하기

박경사는 외등을 향해 사정없이 부딪치다가 지쳐 떨어졌을 나방을 통해 격렬한 삶을 살았을 아버지를 떠올린다. 그리고 나방처럼 격렬한 삶을 잠시라도 누리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다. 이는 나방으로 상징되는 아버지의 삶에 대한 동경이자 연민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장면에서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은 확인할 수 없다. ① ‘그 나방처럼 사는 게 굵고 짧게 사는 걸까.’에서 박경사는 자신의 삶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③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아버지의 삶이 곧 외등을 향하는 나방으로 드러나며, 또한 아버지의 삶의 방식을 이어가려는 박경사의 태도로 볼 때, 박경사는 삶의 긍정적인 가치를 모색하는 인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A]에서 ‘나방’은 아버지를 의미하기도 하고 박경사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렇게 볼 때, ‘외등’은 아버지가 추구하고자 했던 긍정적인 삶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⑤ 아버지가 일제 강점 하의 항일 투사 활동을 했다고 믿는 박경사의 태도로 볼 때 아버지에게 있어서 ‘외등’은 조국의 광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9~13] [시가 수필 복합] 박인로, 「자경(自警)」 이이, 「낙지가(樂志歌)」 주세붕, 「의아기(義鵝記)」

9. [출제의도] 세 작품의 공통점 찾기

(가)의 화자는 ‘명덕(明德)’을 닦는 삶의 태도를, (나)의 화자는 ‘은거행의(隱居行義)’와 ‘요순지도(堯舜之道)’를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다)의 글쓴이는 의(義)를 지키는 삶의 태도를 지향하고 있다. ③ (가)~(다) 모두 갈등 극복의 의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④ 유유자적하는 삶은 (나)에만 나타난다.

10. [출제의도] 공간의 의미와 기능 비교하기

㉠은 화자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명덕(明德)’을 추구하기 위해 바라보는 공간이고, ㉡은 화자가 ‘길 잃은 행인’을 건너가게 하기 위해 만든 ‘계세주’를 버리는 공간이다. ㉢은 화자가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속세(俗世)로, 멀리하고자 하는 공간이고, ㉣은 화자가 현재 머물면서 자연과 함께 유유자적(悠悠自適)하며 살아가는 공간이다. 따라서 ㉠은 화자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라는 긍정적 의미를 부여한 공간이고, ㉡도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삶’이라는 긍정적 의미를 부여한 공간이다. ① ㉡은 화자의 심리적 고뇌가 해소되는 공간이 아니다. ③ ㉣은 화자가 만족하고 있는 공간으로 아쉬움이 드러나지 않는다. ④ ㉢은 화자가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공간이다. ⑤ ㉠은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가 있는 공간이다. 그러나 ㉣은 화자가 현재 이미 머물고 있는 공간이므로 앞으로 머물고자 하는 공간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1. [출제의도] 시어를 연관 지어 감상하기

‘모르도다, 아닌 게오’는 ‘명덕(明德)’을 닦으려 하지 않는 세태와 덕을 닦을 수 있는 길이 많음에도 이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경계를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버렸도다’는 ‘길 잃은 행인’을 구하기 위해 만든 ‘계세주’를 버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각각의 서술어에 화자의 안타까운 정서는 드러나지만 현실적 삶에 얽매이지 않으려는 의지적 태도는 나타나지 않는다.

12.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이해하기

(나)의 화자는 속세를 탐욕과 욕심, 시비하는 다툼이 있는

부정적인 공간으로 인식하고, 속세에서 벗어나 세상사를 잊고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자 한다. (나)에는 인간과 자연의 대비가 나타나지만, 계절의 변화를 묘사하고 있지는 않다. ① ‘뜯 구름’, ‘새’ 등을 통해 시비 없이 한가하게 살고자 하는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② ‘공명이 무엇이라고 일생에 골몰할까’, ‘여년(餘年)이 얼마런고, 이아니 즐거운가.’ 등의 설의적 표현을 통해 의도를 강조하고 있다. ④ ‘남가(南柯)의 한 꿈이라 황량(黃梁)이 덜 익었네.’에서 고사(故事)를 통해 인생의 덧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⑤ ‘욕심의 거센 물결’, ‘탐욕의 샘물’ 등에서 비유를 활용하여 경계하고자 하는 세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13. [출제의도] 전개 방식의 특징 파악하기

‘나’는 B에서 거위의 행동이 갖는 의미를 추출하고 있지 않으며, C에서 거위의 행동이 갖는 의미를 인간의 행동에 적용시키고 있지 않다. ① 가락리 집에서의 ‘나’의 체험은 간접체험이고, 무릉촌 집에서의 ‘나’의 체험은 직접체험이다. A에 나타난 누님의 죽음에 따른 거위의 신의 있는 행동은 소문만 듣고 직접 보지 못한 것이지만, C에 나타난 거위 한 마리가 죽고 난 후의 남은 거위의 신의 있는 행동은 직접 확인한 것이다. ③ A~C에서 D로 글이 전개되면서 ‘나’의 사고는 거위의 행동에 대한 생각에서 인간 세태에 대한 생각으로 확대된다. ④ D에서 ‘나’는 주인에게 충성하고 친구에게 의로운 거위를 보며 그렇지 못한 인간의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⑤ E에서 ‘나’는 D에서 깨달은 바를 바탕으로 사람들이 ‘나쁜 마음을 돌려서’ 거위와 같은 신의 있는 마음을 지니게 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아, 타인과 자신이 오래도록 기억하고자 이 글을 쓴다는 집필 의도를 밝히고 있다.

[14~16] (고전소설) 작자 미상, 「장풍운전」

14. [출제의도] 서술상 특징 파악하기

배경 묘사를 활용하여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는 부분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① ‘이 부인’이 감옥에 갇혀서 풀려나기까지 시간 순서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② ‘취 같은 무리들이 어찌 죄를 감출 수가 있으랴.’에서 서술자가 작품에 개입하고 있다. ④ 장풍운이 하복에서 적들을 물리치는 부분, ‘이 부인’이 죽을 위기에 처하는 부분, 장풍운이 ‘이 부인’을 구하는 부분 등으로의 장면 전환을 통해 사건을 긴박하게 전개하고 있다. ⑤ 장풍운의 꿈에 금산사 부처가 나타나 ‘이 부인’의 상황을 장풍운에게 알리고 있다.

15. [출제의도] 소재의 기능 파악하기

㉠에서 ‘왕 부인’은 장풍운이 돌아오면 옳고 그름이 가려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므로, 미래에 대한 인물의 낙관적인 태도가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다. ㉡에서 ‘이 부인’은 자신의 결백함을 밝힐 길이 없다고 생각하므로 인물의 비판적인 태도가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다. ① ㉠과 ㉡ 모두 상대방을 공격하고 있다. ② ㉠에는 자신의 삶에 대한 회한이 드러나 있지 않다. ③ ㉡에는 상대방에 대한 연민이 드러나 있지 않다. ⑤ ㉠과 ㉡ 모두 새로운 갈등을 유발하게 하는 요인은 없다.

16. [출제의도] 작품의 주요 사건 파악하기

장풍운이 본가에 돌아와 형구를 차려놓고 모든 시비를 죄주

---

려고 할 때, 한 대도 때리기 전에 난향 등이 순순히 자백하고 있으므로, 모진 형벌을 가해 난향의 자백을 유도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